

安東文化圈 載寧李氏 뜰집의 變遷過程

A Study on the Changing Process of Ddeulzip in Jaeryoung Lee's Family
at Andong Cultural Area

김 화 봉*

Kim, Hwabong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ing process in the Ddeulzip of Jaeryoung Lee's clan family.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clan family of Jaeryoung Lee in Andong Area. The period of Ddeulzip's changing process is divided into largely three parts. The establishment process and changing process for Jaeryoung Lee's family is analyzed during early (15~16C), mid(17~18C) and late(19~20C) periods.

The characteristics of early periods is that it made a main ancestral building of Ddeulzip form. Those of mid Chosun period is in their strong will to preserve their ancestral house. During the late period, many of the different styles of Ddeulzip were constructed due to the stable environment of both political and economical status. The residential house of Jaeryoung Lee family that were centered in Youngduk and Youngyang area include diverse forms for both high and middle class social status. Jaeryoung Lee family's Ddeulzip is thus considered to bring about the firm foundation as a clan family representing the Andong cultural area through the development of Ddeulzip.

주제어 : 뜰집, 안동문화권, 재령이씨, 입향, 분파, 변천

Keywords : Ddeulzip, Andong Cultural Area, Jaeryoung Lee's Family, branched family, chang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안동문화권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선시대의 대표적 口字形 양반 가옥인 뜰집¹⁾은 그 형성과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²⁾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조선 중기 이후 영남학파에서 퇴계의 학통을 잇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문중인 재

령이씨(載寧李氏)의 뜰집들을 대상으로 그 변천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문화적 소통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씨족들이 공유한 주거유형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그 공통적 속성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는 동일 씨족의 뜰집을 분석하는 일련의 지속적 연구의 일환으로, 이들의 종합을 통하여 뜰집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안동권에 정착한 대표적인 씨족 중 재령이씨 문중은 갈암 이현일(葛庵 李玄逸, 1627~1704)을 비롯한 7山林³⁾으로 불리는 집안으로 석계, 갈암, 밀암을 통해 3대에 걸쳐 퇴계의 학통을 이어간 영남학파의 명문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령이씨가 안동문화권에 입향하고

* Corresponding Author : woorizip@gntech.ac.kr

본 연구는 2013년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1) '뜰집'은 안동문화권(350여호), 영동문화권(60여호), 경주문화권(30여호)에 분포하는 세 채 이하로 구성되어 폐쇄형의 안마당을 가진 口字形의 상류주거를 지칭하는 전통적 용어이다. 김화봉, 「조선시대 안동문화권의 뜰집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9

2) 연구자의 「조선시대 안동문화권의 뜰집에 관한 연구」(김화봉,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9) 이후 다수의 관련 논문. 참고문헌 참조.

3) 7산림은 석계 이시명(1590~1674), 그의 아들 1남 정목계 이상일(1611~1678), 2남 존재 이회일(1619~1672), 3남 갈암 이현일(1627~1704), 4남 항계 이승일(1631~1698), 갈암의 아들 밀암 이재(1657~1730), 석계의 6남 용일의 아들 고계 이만(1669~1734)을 지칭한다.

분파한 과정 및 뜰집의 건축 및 변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재령 이씨 뜰집의 변천과정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하여 안동문화권 뜰집의 전반적인 변천과정을 분석하는 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재령이씨 영해파가 안동문화권에 입향하고 분파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화인류학적 접근 방법인, 우리나라 家系의 가장 대표적인 기록유산인 氏族의 族譜의 가계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전통주거의 변천과정을 분석함에 있어서 첫 단계인 정확한 건축연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뜰집을 포함한 많은 전통주거들은 명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족보에는 가계의 분파과정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가계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뜰집 건축과정의 전후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뜰집의 건축 연원을 확인하되 건축연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기준을 족보의 분파를 통해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재령이씨 뜰집의 시기별⁴⁾ 형성과정과 공간적 변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안동문화권 뜰집의 변천과정을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과정은 대부분 후손이나 거주자의 구전에 의한 것이며, 한 문중의 변천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유형적 변천의 분석은 제외하였고, 주거유형의 입지와 환경적 배경을 분석하는 것은 선행연구⁵⁾에서 이미 다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뜰집의 변천을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진행은 재령이씨의 계보를 파악한 후, 전기·중기·후기의 시기로 나누어 뜰집의 형성 시기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 이후 어떤 변화과정을 거쳤는지를 분석한다.

재령이씨는 안동문화권에서 동쪽지역인 영덕과 영양을 중심으로 정착하였는데, 이들은 영덕(구 중심 지명은 영해)로 처음 입향한 이애(李瑗, 1480~1560)의 후손으로 영해파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동문화권의 재령이씨 영해파 뜰집의 변천과정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영덕, 영양을 중심으로 17채의 뜰집을 건축하였는데, 6.25때 원

Tab.1 List of research

No	List	家屋主	堂號	住 所
1	A1	李文欽	忠孝堂	盈德郡 蒼水面 仁良2里 465
2	A2	李在崑		盈德郡 蒼水面 梧村里 189-1
3	B1	李赫熙	愚溪宗宅	盈德郡 蒼水面 仁良2里 438-1
4	B2	李哲圭	做谷古宅	英陽郡 石保面 院里里 354
5	B3	李龍熙	惟于堂	英陽郡 石保面 院里里 106
6	B4	李東華	都事古宅	英陽郡 石保面 院里里 329-3
7	C1	李喆熙	葛庵舊宅	盈德郡 蒼水面 梧村里 237
8	C2	李晚熙	葛庵宗家	盈德郡 蒼水面 仁良2里 412-2
9	C3	李元建	石溪古宅	英陽郡 石保面 院里里 308
10	C4	李長熙	石澗古宅	英陽郡 石保面 院里里 320
11	C5	李元朴	令監宅	英陽郡 石保面 院里里 309
12	C6	李 燾	石溪宗家	英陽郡 石保面 院里里 323
13	C7	李秉泰	屏庵古宅	英陽郡 石保面 院里里 311
14	D1	李在綱	存齋宗宅	盈德郡 蒼水面 梧村里 318-1
15	D2	李秉鐸	冷泉古宅	盈德郡 蒼水面 梧村里 237
16	D3	李寅熙	眠雲齋	盈德郡 蒼水面 梧村里 239

리의 2채가 소실되었고, 현재 15채가 남아있다. 또한 석계고택의 경우는 二字집이지만 분석의 자료로 연구에 포함 하였다. 이들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Tab.1 참조)으로 한다.⁶⁾ 본 연구의 도면 자료는 연구자가 작성한 선행 연구의 자료이며, 족보의 조사 및 탐문⁷⁾은 2013년~2014년에 이루어졌다.

2. 재령이씨의 안동문화권 입향과 분파과정

2-1. 재령이씨의 안동문화권 입향

재령이씨는 고려 성종 때의 공신인 이우칭(李禹稱)⁸⁾이 황해도로 재령을 식읍으로 받아 이후 황해도와 수도인 개성일대에 거주했겠지만, 조선이 개국하자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신들이 두문동에 들어갈 때, 3세 모은 이오(茅隱 李午)⁹⁾ 또한 동참하다,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

6) 분석대상의 일련번호는 족보에서의 9세의 항렬순으로 하되 뜰집을 건축한 인물을 중심으로 하였다.

7) 족보의 자료와 건축연대의 고증은 영덕군 창수면 오촌리 이병환(1956년생)씨와 영양군 석보면 원리 이병태(1936년생)씨 및 마을 어른들의 탐문을 통해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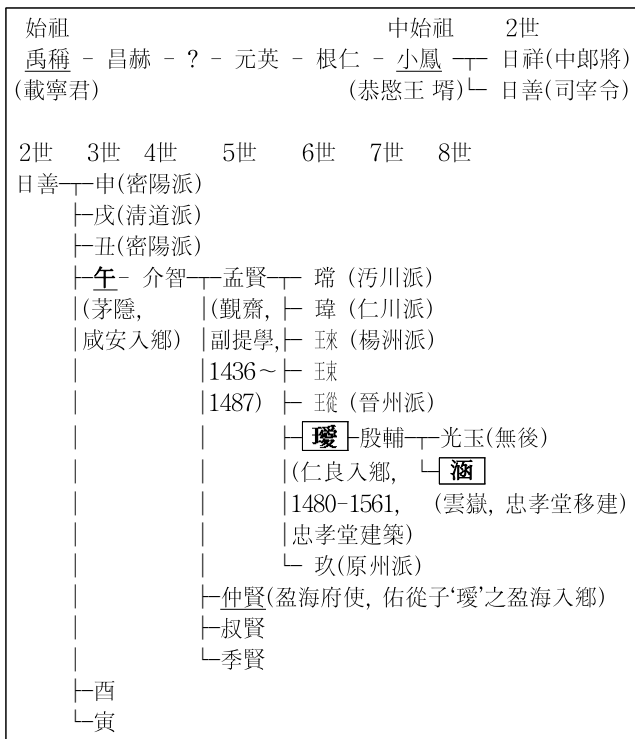
8) 고려의 중신 이우칭(李禹稱, ?)은 경주(월성)이씨 소판공(蘇判官) 이거명(李居明)의 7세손으로 보조공신(補祚功臣)에 책록되고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낸 후 재령군에 봉해져, 후손들이 황해도의 재령을 관향으로 삼았다. 재령은 907(효공왕11)년부터 안주(安州)라 불리우다, 1217(고종4)년 거란의 침입을 막은 공으로 재령(載寧)으로 개칭되었다. <http://jaeryoung.com>

9) 여말 충신(麗末 忠臣) 모은 이오(茅隱 李午)는 포은 정몽주(圃隱 鄭夢周), 목은 이색(牧隱 李穡)의 문하였고, 공양왕때 성균관 진사시에 합격하니 포은(圃隱)선생께서 벼슬하기를 권고했으나 사양하였다.

4) 본 연구에서의 시기 구분은 본 연구의 대상인 뜰집의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를 포괄적으로 삼분(三分)한 것이다. 즉 조선 초기에서 현대까지를 2세기씩 구분하여, 조선 초에서 임란 이전까지를 전기(본 연구에서는 16C만 해당), 임란 후 정조까지를 중기(17~18C), 순조 이후를 후기(19C~일제강점기)로 구분하였다.

5) 김화봉, 「조선시대 안동문화권의 뜰집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9

Tab.2 載寧李氏 安東文化圈 入鄉 家繼



리에 이주해 고려동(高麗洞)이라 했다. 그의 손자 5세 중현(仲賢)은 영해 부사를 역임하였는데, 이 때 조카인 에(瑗, 1480-1560)를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나라골에 입향하도록 했다. 그가 영해파의 파조가 되어 안동문화권에 처음 정착했다. 재령이씨의 안동문화권으로의 입향은 이렇게 이루어졌다.¹⁰⁾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재령이씨의 들집은 모두 淸溪公 후손의 주거이다. 이후 그의 손자 8세 함(雲嶽, 涵)은 재령이씨의 영해파를 크게 번성시켰다.

2-2. 재령이씨의 안동문화권 분파

재령이씨 6세 瑗가 16C초에 삼촌인 영해부사 李仲賢을 따라 와서 영덕군 영해면 인량리 나라골에 입향했고, 瑗의 손자 8세 함(涵, 1554~1632)은 진성이씨를 배위로 맞아 다섯 아들을 두어 집안이 번성했다. 涵의 3남 석계이시명(石溪 李時明, 1590~1674)¹¹⁾은 퇴계의 학통을 이

고려가 망하자 송도 교외의 두문동(杜門洞)에 72명의 고려 충신들이 모여 조선에 벼슬하기를 거부하자, 태조가 이곳을 탄압하였다. 모은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낙남(落南)하여 청도, 밀양, 함안 등으로 이거했다. 영남에 분포한 재령이씨는 이들의 후손들이다. 모은은 함안의 모곡리에 은거(隱居)하였다. 후에 태종(太宗)이 여러 번 출사(出仕)를 권했으나 끝내 가지 않았다. 그의 유언에 따라 사후 묘비(墓碑)에는 글 한자 없는 백비(白碑)를 세웠다.(함안군지)

10) 송지향, 『安東鄉土誌』上,下, 대성문화사, 1983

11) 石溪 李時明은 敬堂 張興孝(1564~1633)의 문인이자 사위이지만, 병자호란의 사태를 보고 은둔하여 선비정신을 실천한 인물이다. 조

은 경당 장흥효(敬堂 張興孝)의 문하에 들어가 학행을 닦았고, 안동 장씨를 배위로 맞아 모두 7형제를 두었는데, 이들을 7현자(七賢者)¹²⁾라 한다.

벼슬을 하지 않고 학문과 후학의 교육에만 전념했던 석계(石溪)는 중년(51세)에 영양군 일월면 원리 두들마을로 이거¹³⁾했고, 石溪의 둘째 아들 10세 존재 이휘일(存齋 李徽逸, 1619~1672)과 셋째 아들 갈암 이현일(葛庵 李玄逸, 1627~1704)은 부친의 고향인 나라골에서 더 깊은 계곡인 영덕군 창수면 오촌리로 입향했다. 이조판서를 행한 葛庵은 만년(1700)에 귀양에서 돌아와 안동의 임하면 금소리에 정착¹⁴⁾해 후학을 가르쳤다. 갈암의 셋째 아들 밀암 이재(密庵 李裁, 1657~1730)도 이곳에 자리 잡았지만, 들집을 건축하지는 않았는데, 금소에서의 후학들이 갈암과 밀암을 추모하여 후에 들집(재실)을 건축했다. 비록 재령이씨가 건축한 들집은 아니지만 갈암의 강학지를 추모하여 건축한 들집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다.

석계의 중형인 우계 이시형은 인량에서 동촌 분가하여 들집을 건축하였다. 그의 손자인 11세 權(做谷, 1636-1712)이 영양 두들마을의 이웃인 주남리로 이주하여 들집을 건축하였지만, 1830년대에 두들마을로 이거하여 후손들이 이 마을에 모여 살게 되었다.

인량에 살던 17세 震榮은 19C 중반에 갈암의 후손이 살던 오촌으로 들어와 들집을 지었고, 오촌에 살던 갈암의 종손 20세 철호는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로 이주하였다가 이곳이 임하면의 건설로 수몰지역에 포함되자, 다시 인량으로 들집을 이전했다.

따라서 안동문화권에서 재령이씨가 건축한 들집이 있는 마을은 영덕의 나라골과 오촌, 영양의 두들마을로, 세

용현,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6) 영양 이시명 집안, 디지털조선일보, 2010. 4. 24.

12) 석계의 1子 상일, 2子 존재 휘일(存齋 李徽逸, 1619~1672), 3子 갈암 현일(葛庵 李玄逸, 1627~1704), 승일, 정일, 응일, 윤일. 재령이씨 종친회, 『우리집의 족보』, 민중서원, 1997. 이중 둘째아들 갈암 이현일(葛庵 李玄逸, 1627-1704)은 경당의 학문을 정통하여 퇴계의 학통을 이었고, 이조판서에 올라 재령이씨의 중심인물이라 할 수 있다.

13) 석계는 중년(51세)에 부인인 정부인 장씨의 고향인 안동과 영덕 중간지점인 영양군 석보면 원리에 마을을 개척했지만, 말년(82세)에는 다시 안동 서후면 명리로 이거했는데, 후손들이 정착하지는 않았다. 이는 그의 아들 갈암이 금소에서 돌아가신 것과 유사하다. 갈암 종손 이만희 고증

14) 갈암은 기사환국(숙종15, 1689)에 입각해 이조판서에 이르렀으나 갑술환국(숙종20, 1694)에 좌천, 7년간 유배된 후 안동 금소에 정착해 강의하다 돌아가셨다. 이곳의 제자 명단인 '금양금문록'에는 353명의 제자 명단이 실려 있다. 말년에 갈암이 금소에 정착한 이유는 부친의 묘소가 가깝고, 친구인 금음 김학배(錦翁 金學培, 1628~1673)의 질녀와 결혼한 아들 密庵의 처가가 인근인 천전리에 있는 등의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 자료 : Daum. Cafe. 안동문화지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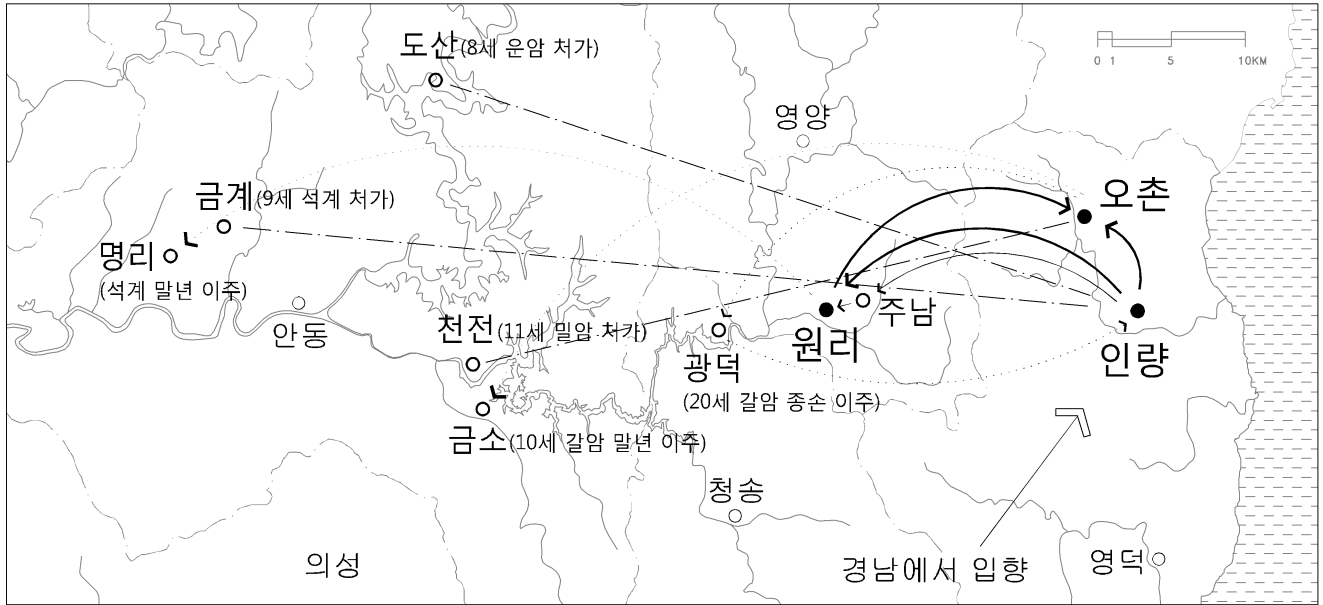


Fig.1 載寧李氏 入郷, 分派(→), 通婚(---) 過程

마을이다. 안동문화권에서 재령이씨가 분파한 지역은 그렇게 넓은 지역으로 볼 수는 없으며, 많은 마을을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씨족이 흩어져 분파하기 보다는 서로 가까이 모여 살기를 더 선호하여, 형제가 동시에 마을 개척하거나, 인척이 있는 마을로 주거를 이관하는 등의 공통성을 보여 고향에 대한 회귀성 혹은 근원지에 집착한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2-3. 재령이씨의 안동문화권 통혼

인랑 나라골에 입향해 충효당을 건축한 재령이씨 5세대(璿)는 진보백씨를 배위로 맞아 정착하였고,璿의 손자 함(涵, 1554~1632)은 진성이씨(진성이씨 9세 종손 이회안의 딸)를 배위로 맞아 다섯 아들을 두었다. 퇴계의 집안과 영해에서 통혼을 맺은 것은 그 동안의 지역적 기반이 두터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⁵⁾璿의 3남 석계 이시명(石溪 李時明, 1590~1674)은 퇴계의 학통을 이은 경당 장흥효(敬堂 張興孝)의 문하에 들어갔는데, 이것 또한 영해에서 멀리 안동으로 유학갈 수 있었던 것은 외가로부터의 인연이 학문적 계승으로 이어진 것을 의미한다. 석계는 첫 부인의 사후에 경당의 무남독녀인 정부인 장씨를 맞아들여 7현자를 낳은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경당이 있던 안동의 외가(안동시 서후면 성곡리)에서 태어나거나 교육받았다고 한다.¹⁶⁾ 이로써 서애와 학봉을 사사한 경당

Tab.3 載寧李氏 Ddeulzip 建築 時期 (現況 平面)

전기	중기		후기		
	16C	17C	18C	19C	20C
A1 충효당(16C후반)	B1 우계종택(1660경)	D2 병천고택(1720경)	A2 아계근(19C전반)	C2 이만희(1910)	
	B2 주리고택(17후반)	D3 면문서(1750경)	B3 유우당(1833)		
	C1 갈양구택(1673경)		B4 도사고택(1850)		
	C3 석계고택(17C후)		C4 석간고택(19C중)		
	D1 존재종택(17C중)		C5 영감택(1810)		
			C6 석계종택(19C후)		
			C7 병암고택(1830)		

의 학문은 석계를 거쳐 갈암에게 이어지고 다시 그의 아들 밀암 이재(密庵 李裁, 1657~1730)로 이어졌다.

15) 이함의 부친인 이은보의 분재기(分財記)에 노비(소작 포함)가 700명가량 있었다고 한다. 조용현, 전게서.

16) 송지향, 전게서, 下, p.628.

따라서 재령이씨가 안동권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기반은 사족의 지위에서 안동으로 이주하였고, 이후 안동문화권의 저명한 문중과 통혼을 통하여 기반을 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재령이씨 뜰집의 형성과정

3-1. 전기(16C)의 뜰집 형성과정

재령이씨가 뜰집을 처음 건축한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16C초에 이애(1480-1561)가 나라골에 입향하여 충효당(사랑 별당)을 건축하였고, 16C말에 현재의 터전으로 이전한 것으로 전하므로, 그의 손자인 8世 이함(李涵)이 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고, 본채(A1) 건축의 최 하한선을 이 때라 할 수 있다.涵은 퇴계문중인 진성이씨 종손의 따님과 결혼함으로써 진성이씨의 살림채 공간인 뜰집을 영덕으로 도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본채에 포함된 사랑채의 증축은 그 후대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것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지역 중심 문화공간의 역할을 했을 충효당과 같은 큰 규모의 사랑채와 영덕에서 가장 빠른 뜰집을 건축한 것은 지역기반이 약한 재령이씨가 짧은 시간에 지방의 토호로 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에는 지방 수령의 후손이라는 것에 통혼을 통한 인맥적 교류가 작용하였을 것이다. 지역민과의 문화교류를 위하여 사랑별당을 건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과의 동화를 보여주는 토착화의 최종 결정판은 뜰집을 건축하는 것이었다. 퇴계의 학맥을 잇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뜰집의 건축을 통해 공간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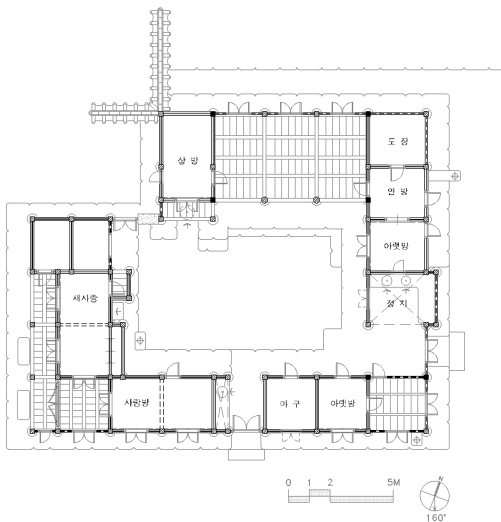


Fig.3 盈德 忠孝堂(A1) 平面圖

초기에 건축한 재령이씨의 뜰집은 단 한 집이지만, 규모면에서도 사랑 별당과 함께 종가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 비록 이전하여 개축하였다 하더라도 뜰집의 속성을 충분히 가진 주거로서 재령이씨의 주거를 대표하는 뜰집이라 할 수 있다.

3-2. 중기(17~18C)의 뜰집 형성과정

임난이 지난 조선 중기에 들어서면서 석계(石溪)의 내자인 장씨부인의 두들마을의 개척과 그 아들들의 학문적 위업의 결과 재령 이씨의 위상은 크게 신장되었고, 영덕을 넘어서 안동의 중심 문중이 되었다. 또한 뜰집의 건축이 급격히 늘어나 4채의 뜰집을 구축했다.

우선 석계가 영양으로 이주하면서 두들마을에 뜰집의 태동적 공간을 보여주는 二字집(C3)을 건축(1640년경)하였고, 종가인 충효당 앞에는 석계의 중형인 우계(遇溪, 1587~1612)가 분가한 후에 그의 후손이 소규모의 원형적 공간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뜰집(B1)을 건축(1660년경)했다. 이어 석계의 두 아들 존재(存齋)와 갈암(葛庵)이 인량에서 가까운 오촌으로 이주하여 두 채(C1, D1)의 뜰집을 건축(17C중반)했다. 또한 우계의 손자인 주곡(倣谷)이 두들마을 인근의 주남마을에 이주하여 전형적인 구성의 뜰집(B2)을 건축(17C후반)했다.

17C에 비하여 18C는 그간의 안정과 달리 매우 어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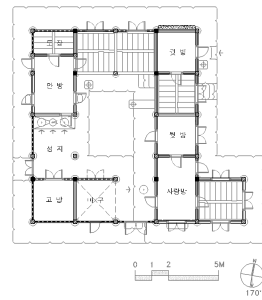


Fig.4 遇溪宗家(B1) 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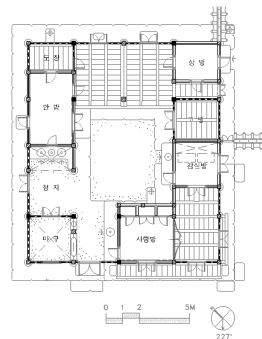


Fig.5 倣谷古宅(B2) 平面圖

했다. 이 과정을 보여주는 유형이 냉천고택(D2)이다. 일시에 뜰집의 건축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진행되는 시차(時差)¹⁸⁾적 건축과정을 보여주는 세 채로 구성된 뜰집을 지은 것에서 잘 나타난다. 더구나 완전한 뜰집의 구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건축의 매도(賣渡)되었고, 그 후 공간이 증축되면서 뜰집의 초기적 구상이 유지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뜰집의 형성과 변천과정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Fig.6 냉천古宅(D2) 平面圖

3-3. 후기(19~20C)의 뜰집 형성과정

19C에는 농법의 개량과 농지의 확대 등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호전이 있었고, 가장 많은 건축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재령이씨는 모두 7채의 뜰집을 건축했다.

인량리의 충효당 후손인 17世 震榮은 19C초에 오촌으로 분가하여 뜰집을 건축했는데, 오촌에는 모두 다섯 채의 뜰집이 형성되었다.

석계고택에서 석계의 부인인 장씨부인을 모시고 살던 석계의 셋째아들인 항재의 후손들이 19C 후반에 6채의 뜰집을 지었는데, 6.25에 두 채가 훼손되었다.

영양의 주남마을 있던 주곡고택(B2)을 두들마을로 1830년대에 이전했다. 뒤에 주남마을에는 유우당(B3)이 건축되었지만, 20세기 초에 이 집도 두들마을로 이전했다. 주곡의 후손이 19C말에 두들마을에 도사고택(B4)을 지었다. 현재 두들마을에는 주곡 후손의 뜰집이 3채, 항재 후손의 뜰집이 4채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하여 두들마을은 모두 7호의 뜰집이 형성되어 재령이씨를 대표하는 집성촌이 되었다.

20C에 들어 뜰집의 건축 활동은 급격히 줄었는데, 다만 오촌에 있던 갈암의 주손이 1910년에 청송의 광덕마을로 이주하여 뜰집(C2)을 새로이 건축했는데, 1992년에 임하댐 건설로 그곳이 수몰지역에 포함되자 재령이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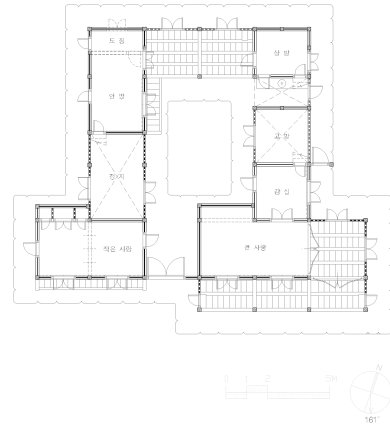


Fig.7 葛庵宗宅(C2) 平面圖

안동권 본향인 영덕의 나라골로 뜰집을 이전했다.

이러한 건축 활동으로 보이는 후기의 재령이씨 뜰집 형성의 독특한 특성으로 뜰집의 이축(移築)을 들 수 있는데, 두들마을과 나라골로의 집합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4. 재령이씨 뜰집의 변화과정

4-1. 전기(16C)의 뜰집 변화과정

전기의 유일한 뜰집인 영덕 충효당은 입향시인 1470년 경 건축된 사랑 별당을 마을 위쪽의 현 부지로 이전하면서 조성된 것이라 한다. 살림채인 뜰집도 이전한 것이라 하나 건축연대를 확인할 수 없다. 입향 100여년 후에 지역 중심역할을 했던 충효당과 살림채를 인접하여 조성할 필요성에 의해 이들을 합하여 새로운 부지에 주거를 경영한 것이다. 강당인 충효당이 인접하자 사랑채 및 안마당의 공간적 요구가 더 커졌을 것이고, 이를 위해 행랑을 한 칸 더 넓혀 서쪽으로 증축하였다. 그 구조적 차이는 사랑과 중문간 옆의 행랑채 결합부 목구조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러한 뜰집의 구조적 불일치가 나타나는 부분은 많은 사례에서 그 시차¹⁹⁾의 흔적을 남김으로써 명확히 드러난다. 물론 재료의 시대 차이가 육안으로 관찰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시기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전시 증축한 것인지, 그 후의 건축행위인지에 대한 확증은 없다. 명확한 것은 교육의 기능을 했던 충효당을 사랑별당으로 자리잡게 하고, 본채를 한 곳으로 모음으로써 영역의 명확성을 구축하려했던 의도가 임난 전후의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공간적 작위성이 매우 이른 시기에 드러

18) 김화봉·조성기, 「안동문화권 ‘뜰집’의 建築 時差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4권 제4호, p.p.141~150, 1998년 4월

19) 김화봉·조성기, 「안동문화권 ‘뜰집’의 建築 時差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4권 제4호, p.p.141~150, 1998년 4월

Tab.5 List of building process

番號	記號	堂號	家屋主	初創 ([], ■)	重創(■) / 増改築(◎) / 移建(□)	前期 (15-16C)	中期 (17-18C)	後期 (19-20C)
1	A1	忠孝堂	李文欽	1470頃	壬亂前後 別堂 建築, 內堂移建現位置	[]	■	
2	A2		李在崑	19C初	1965年 改修			■ ◎
3	B1	愚溪宗宅	李赫熙	1607			■	
4	B2	做谷古宅	李哲圭	17C後半	做谷建築做南里 / 1830年 移建		■	□
5	B3	惟于堂	李龍熙	1833	惟于堂建築做南里 / 20C初 移建·増築			■ □◎
6	B4	都事古宅	李東華	1850	舍廊 増築			■ ◎
7	C1	葛庵舊宅	李喆熙	1673頃	19C後半 葛庵舊宅 買入		■	
8	C2	葛庵宗宅	李晩熙	1910頃	移住青松 新築 / 1992年 盈德 仁良 移築			■ □
9	C3	石溪故宅	李元建	1640	石溪之3子恒齋 改築 二字家		[] []	
10	C4	石澗古宅	李長熙	19C中半	舍廊 増築			■ ◎
11	C5	令監宅	李元朴	19C末				■
12	C6	石溪宗宅	李 燾	19C中半				■
13	C7	屏庵古宅	李秉泰	1830				■
14	D1	存齋宗宅	李在綱	17C中半			■	
15	D2	冷泉古宅	李秉鐸	1720頃			■	
16	D3	眠雲齋	李寅熙	1750頃			■	

난 것으로 볼 수 있다.

4-2. 중기(17~18C)의 뜰집 변화과정

뜰집이 아닌 주거의 건축행위로는 석계가 두들마을 입향시에 건축한 소박한 주거를 그의 셋째 아들인 항재(恒齋, 1631-1698)가 二字의 기와집으로 신축한 점이다. 이는 그의 모친인 정부인 장씨를 모시기 위함이라고 한다.

중기의 건축적 변천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다. 17C에 적극적이던 신축의 활동은 18C에는 매우 줄었고, 신축의 위축과 함께 건축적 변화 또한 거의 없었다.

4-3. 후기(19~20C)의 뜰집 변화과정

조용했던 중기의 건축변화와 달리 후기에 들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시기의 변화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지는데, 외적인 변화인 이축(移築) 및 증개축과 내적인 변화라 할 수 있는 집 주인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뜰집의 이축은 19C 전반부터 시작되는데, 먼저 1830년에 주남마을에 있던 주곡고택을 두들마을로 이전한 일이다. 뒤이어 주남마을에 1833년에 지어진 유우당을 다시 20C초에 두들마을로 이전하면서 사랑채도 증축하였다. 이로써 영양으로 이주한 재령이씨의 뜰집이 모두 두들마을로 집합하는 판도를 이루어 뜰집이 집중적으로 형성되면서 두들마을이 안동문화권 재령이씨의 중심 터전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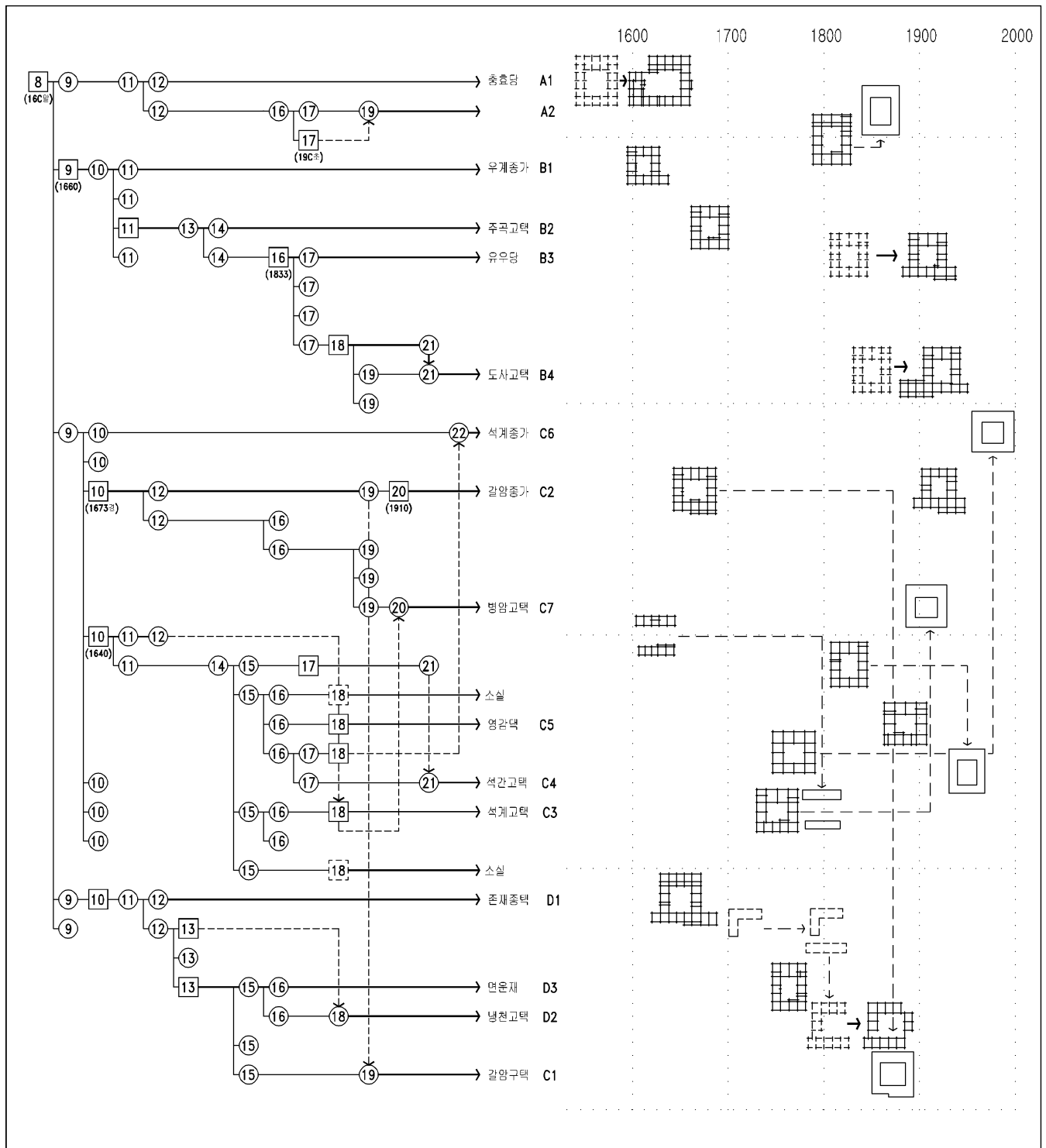
20세기의 주거 이전은 갈암중손의 청송으로의 이주를 들 수 있는데, 기존의 건축은 매각하고 1910년에 신축하였다. 그러나 광덕마을이 임하담의 건설로 수물지역에 편입됨으로써 1980년대에 영덕의 인량마을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갈암의 주손도 결국 재령이씨가 사는 마을로 이주한 것이다. 재령이씨의 주거 이전은 이렇게 씨족끼리 모여 사는 형국으로 정리되어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축과 함께 증축도 이루어졌는데, 19C 중순에 건축된 석간고택에는 사랑별당을 신축하였고, 19C말에 건축된 도사고택도 20C초에 사랑채를 증축하였다. 이로써 후기에 들어 두들마을에는 세 뜰집에 사랑채가 증축됐다.

20C 후반의 개축으로 오촌의 이재곤가옥(A2)의 사례가 특이한데, 1965년에 안마당 정면의 대청마루공간을 방으로 개조하고, 안방의 위치에 부엌을 들이는 개조를 했는데, 현대적 생활의 변용이 반영되어 뜰집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노력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19~20C에 이루어진 재령이씨 뜰집의 변화는 공간적인 변화보다는 내적인 변화인 매매로 더 많은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우선 중기인 18C에서부터 이미 나타났는데, 먼저 인량마을의 충효당에서 동촌 분가하면서 건축했던 우계 이시형(愚溪 李時亨, 1587~1612)의 뜰집(B1)이 후대에 타 문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근년에 다시 우계의 주손이 매입하여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아 왔다.²⁰⁾

Tab.6 載寧李氏 Ddeulzip 變遷過程(點線圖面→實線圖面：增改築，- - -：賣買)



오촌의 존재 증손인 13世 냉천 이유원(冷泉 李猷遠, 1695~1773)은 들집을 건축했지만, 이를 그의 동생인 면운재(眠雲齋 李周遠, 1714~1796)의 후손에게 매각하고 청송의 광덕리로 이주했다. 후대에 갈암의 증손도 광덕리로 이주하게 되었다. 갈암증손이 이주할 때 갈암구택을

면운재의 후손이 매입하였다. 18C말에 오촌으로 분가해 들집을 건축했던 충효당의 후손인 17世 진영(震榮)의 아들은 사촌에게 매각했다.

영양의 두들마을에서의 내적인 변화는 더 많았는데, 우선 들집은 아니지만, 향재가 개축했던 석계고택도 손자대에 이미 석계고택을 매매했다. 두들마을에는 석계의 넷째 아들인 향재 이승일(恒齋 李嵩逸)의 후손 중 17世와 18

20) 이를 문중에서 안타까워했는데, 매입했던 타성의 주인이 우계의 후손에게 다시 매입을 권유한 미담이 있다. 고증 우계증손 이혁희.

世 연간에 6채의 뜰집이 건축되었지만, 영감택을 제외하고 모두 주인이 바뀌었고, 6.25에 두 집이나 소실되었다. 이러한 저변에는 오촌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²¹⁾을 하기 위하여 집을 비우는 등 관리에 소홀한 경우도 있었고, 원리에는 월북한 뜰집의 주인도 2집이나 있었던 이유 등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Tab.6 참조) 근래의 특이한 공통점은 오촌의 우계중손과 같이 석계의 중손이 근년에 뜰집을 매입한 점이다. 동일한 뜰집은 아니더라도 중손의 가치를 뜰집의 보유와 동일시하는 문화라 할 수 있다.

재령이씨 뜰집의 매매는 모두 7집에서 이루어졌다. 구전에 의하면 한 주거의 거래가 여러 번 있었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한 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족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최소한 타 씨족에게 조상의 주거를 넘기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파악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안동문화권 재령이씨의 뜰집을 대상으로 그 변천을 조선 초기~현대까지의 기간을 크게 삼분하여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1. 전기인 16C에는 안동문화권의 외연부인 영해의 인량 나라골로 입향함으로써 소박한 씨족의 정착이 이루어졌지만, 뜰집의 건축과 지방 중심 사족과의 통혼을 통하여 재지사족의 기반을 닦은 시기라 할 수 있다. 짧은 기간에 빠른 정착을 이루었다.

2. 중기인 17~18C에는 퇴계학을 계승하는 학문적 성취와 중앙 정계로의 진입을 통해 확고한 지역기반을 잡은 시기로 인근의 오촌마을과 영양의 두들마을을 개척함으로써, 씨족의 세력을 점차 넓혀 나갔다. 뜰집은 모두 여섯 채가 건축되었다.

그 중 석계와 갈암을 중심으로 한 17C에는 활발하였던 건축활동이 영남학파의 쇠퇴와 환경적 궁핍이 심했던 18C에 건축활동이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후기의 초반인 19C에는 18C에 있었던 부진을 극복해 적극적인 건축활동을 통하여 많은 뜰집이 조성되었으며, 특히 주거의 이전을 통하여 분산된 씨족을 모아 집합적 씨족의 결집력을 다지려는 노력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건축주가 많이 바뀌는 불안

정도 보여주고 있다. 조선 말기의 시대적 혼돈과 20C 전반의 국가적 위기를 재령이씨의 뜰집도 같이 겪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씨족에게 조상이 건축한 뜰집을 양도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잘 드러남을 볼 수 있다. 또한 20C 후반에 들어 문증을 보존하기 위한 움직임과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뜰집을 큰 훼손 없이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재령이씨는 안동문화권에 정착한 중규모의 문중임에도 불구하고, 퇴계의 학통을 잇고 많은 인재를 낳아 지역에서 안정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씨족의 재지 기반을 돈독하게 형성하였다. 그 기반으로 뜰집을 중심으로 한 건축적 위상을 견고히 확보하고 유지해온 안동문화권의 대표적 가문이라 할 수 있다.

References

1. 송지향, 『安東郷土誌』上,下, 대성문화사, 1983
2. 최일, 「조선 중기이후 남부지방 중상류주거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9
3. 경상북도향토사연구협의회, 『慶北마을誌』, 신흥인쇄사, 1992
4. 김운제 외, 『안동의 선비문화』, 아세아문화사, 1997
5. 재령이씨 종친회, 『우리집의 족보』, 민중서원, 1997
6.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7. 김화봉·조성기, 「안동문화권 ‘뜰집’의 建築 時差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4권 제4호, p.p.141~150, 1998년 4월
8. 김화봉, 「조선시대 안동문화권의 뜰집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9
9. 재령이씨 대동보편찬위원회, 『載寧李氏大同譜』, 회상사, 2000
10. 조용헌, 『5백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 푸른역사, 2002
11. 김화봉, 「豊山金氏마을 뜰집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v.13 n.3, p.p.51~61, 2004년9월
12. 김화봉, 「안동문화권 眞城 李氏 뜰집의 變遷過程」, 건축역사연구 v.22 n.1 (통권 86호), p.p.15~27, 2013년2월
13. 김화봉, 「안동권 義城 金氏 뜰집의 변천과정」, 건축역사연구 v.23 n.2 (통권 93호), p.p.25~37, 2014년4월

Received (12.15.2014)

Revised (4.18.2015)

Accepted (4.30.2015)

21) 오촌의 면운계의 8대 주손인 이겸호(李謙浩)는 독립운동으로 서거했으며, 후손을 양자로 이었다. 고증 오촌 이병환